

안정적 2등급을 위한 방향 제시 칼럼

조선생

목차

- 0. 전제
- 1. 문학 완성도 높이기
- 2. 선택 과목
 - 2.1 화법과 작문
 - 2.2 언어와 매체
- 3. 독서
- 4. 실전 모의고사 활용
- 5. 일정표
- 6. 마치며

0. 전제

수능 국어에서 암기가 무슨 말이야!

수능은 only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해당 칼럼을 읽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해당 칼럼은 필히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학과 선택 과목을 공고히 만들어 수능장에서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늘려
자신의 실력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는다.”**

제가 항상 2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는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3등급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문학 그다음 선택 과목입니다.

본인이 독서(비문학)이 약점이고 문학은 정말 잘하는데 낮은 2등급 이하가 나오는 학생분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정말 문학을 잘합니까?

정말 문학을 20~25분 컷. 화작 15분 내외 컷하고 40분을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실력입니
까?

세상에는 다양한 반례가 있겠지만, 남은 기간 독서에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거두기는 어렵습
니다. 이 칼럼은 남은 40 여일 간 독서의 유지+소폭 상승 / 문학과 선택 과목의 완성을 지
향한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 문학 완성도 높이기

1-1 독해 틀, 풀이 틀 제발 공고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등 문학에 대한 독해법, 선지 판단 태도 등이 적립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는 그것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생들에게 문학에서 갈래 상관없이 항상 “제목 → <보기> 확인 후 지문과 연결하며 독해 → 지문에서 체크할 것을 체크 → 선지 판단”이라는 큰 원칙을 세워둔 뒤 갈래별로 독해 포인트 및 체크포인트를 설정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독해 틀을 말할 시기가 아니니 이는 각자 배운 것에 맞춰 적용하세요)

정리하단다면

문학 강의 및 기출 분석에서 체득한 포인트들을 스스로 노트 정리

후 그것을 아예 암기한 뒤 문학 문제를 풀 때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독해 및 선지 판단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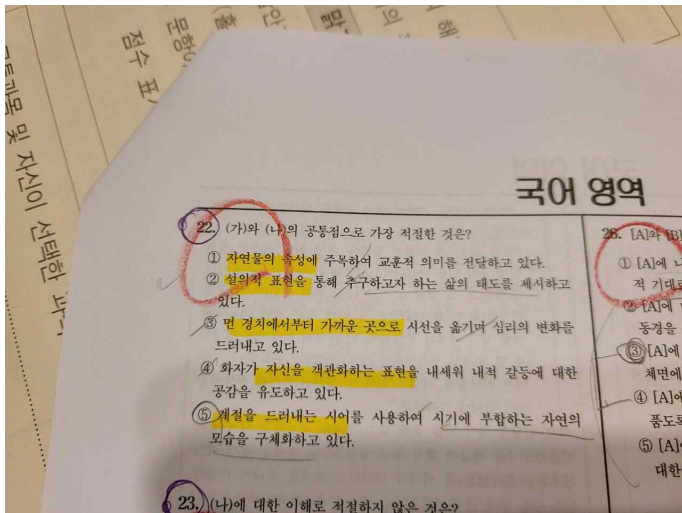
1-2 개념어 정리

수능 문학에서 각 지문별로 필히 출제되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개념어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개념어 문항을 틀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념어 문항은 맞추는 것은 당연하고 “빠르게” 풀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념어를 정리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기출 분석을 하든 실모를 풀든 양치기 문항을 풀든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 (개념어를 묻는 문항)이 제시되면 개념어의 형광펜을 치고 해당 개념어를 복습하세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개념어를 다시 정립하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3 문학 선지 구성원리 익히기(아주 아주 중요!!!)

문학에서 옳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원리를 익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체-대상, 인과관계, 없는 말 삽입, 맥락 오류, 연결 등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강조하는 부분일 것이므로 해당 내용 역시 정리를 해 암기한 뒤 기출 분석, 살모, 양치기를 할 때 해당 구성원리를 인식하며 선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 선지 판단시 '진짜 00이가 그런 게 맞아?'

'진짜 00 장소에서 그런 게 맞아?'

'진짜 00으로 00이 된 게 맞아?'

이와 같이 선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답률 및 의문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1-4 최소한 ebs에서 고전시가는 외워라.

올해 고전시가가 ebs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암기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갈래는 고전시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어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다면 고전시가,

시간이 더 있다면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순으로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외워서 수능을 접근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시중에 좋은 ebs 정리집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리집도 많고

굳이 공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운다기보단

자투리 시간에 후딱후딱 하나씩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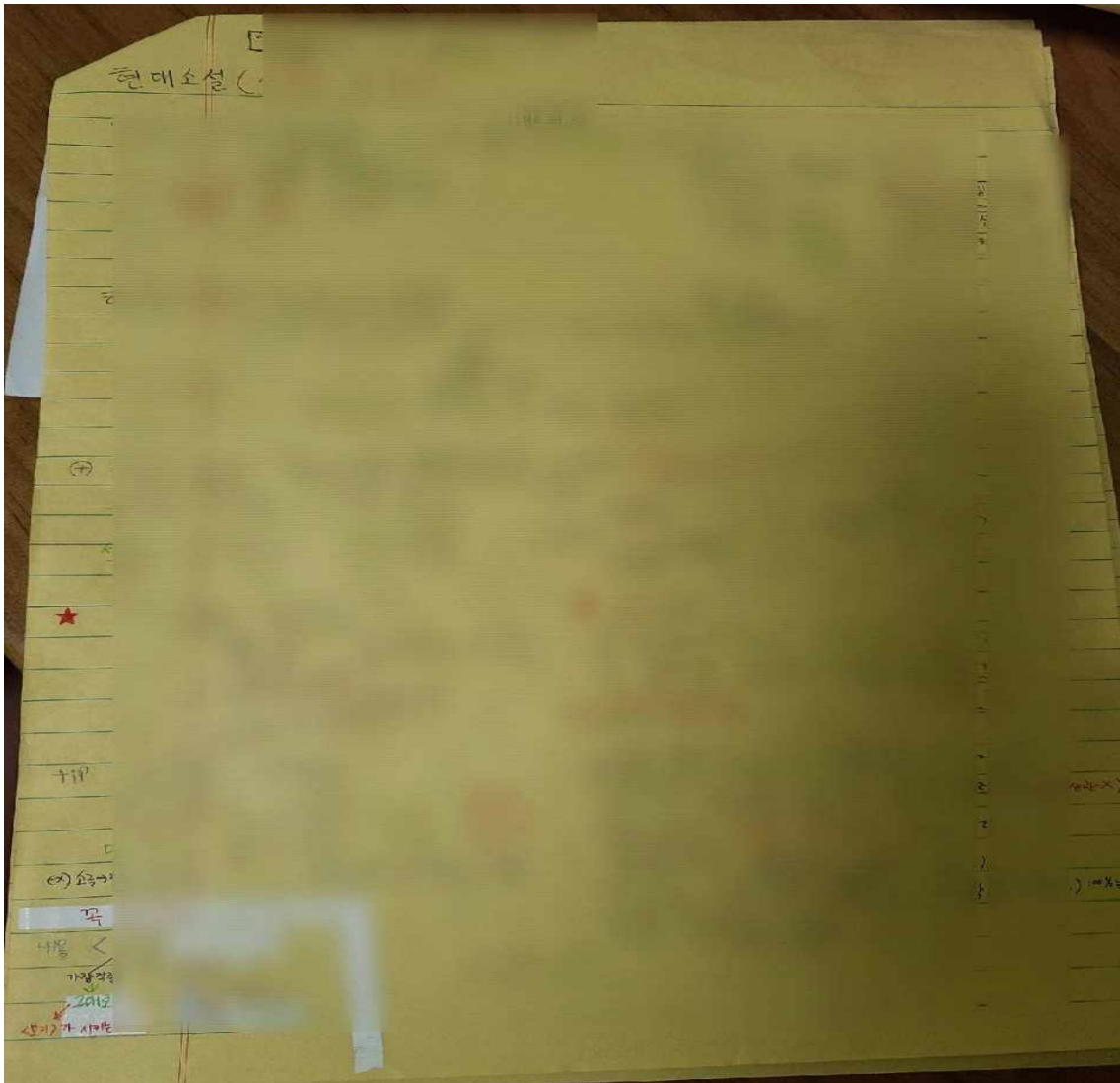
1-5 단권화

수능에 뭘 암기 단권화야! 하실 분들은 그냥 지나가십쇼.

개인적으로는 각 갈래별로 자신이 들은 강의와 기출 분석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 독해 태도 및 선지 판단 원칙을 단권화 노트로 만들어 정리하세요.

저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에 대한 독해 태도, 선지 판단 원리에 대한 독해 태도를 각각 a4 한쪽 분량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매일 읽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예시입니다.



이러면 문학에 대해서는 독해 태도가 자연스럽게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선택 과목에 대해

2-1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2-1-1

화법과 작문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

화법과 작문에 대한 개념 공부(강의든 교재든)가 진행되신 분들이라면

주 2~3회 화작을 풀면서 감을 유지해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19학년도 기출, 상상+한수 등에서 나온 화작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를 추천드립니다.

2-1-2

화법과 작문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

화법과 작문은 그냥 읽는다?

개인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배웠을 때와 안 배웠을 때의 차이가 문학만큼 큼니다.

제발 화작 개념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 안 걸리니까 강의나 피랩 같은 자습서를 이용해서 제발 화법 개념을 익힌 뒤 2-1-1처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2 언어와 매체

해당 부분은 언어(문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잘 공부해놓으면 시간 단축에 정말 효자인 영역입니다.

특히 언어는 많이 공부해놓을수록 시험이 쉽든 어렵든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문법 기출 1~2세트(5~10문제)를 or 시중에 있는 문법 모의고사(상상 한수 등)를 풀며 각각의 선지에 대한 해설을 쓰듯이 백지 복습을 하는 공부법을 권장합니다.

문법은 결국 암기입니다.

제발 필히 언매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언매를 선택한 허수가 아닌

언매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제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3. 독서

절대 현 시점에 독해법을 바꾸려 하시거나 새로운 것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독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독서는 하던 대로 진득하게 기출 1~2지문 분석하고 낯선 문제를 꾸준히 접하면 됩니다.
간혹 제가 문학과 선택 과목을 강조하다보니 몇몇 학생들이 독서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독서는 꾸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실전 모의고사 활용

개인적으로 주1~2회 정도 실모는 꼭 풀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모에 관련한 워낙 좋은 칼럼 등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는 길게 쓰지 않을 것이지만
피드백에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시 cctv로 80분간의 나를 본다고 생각해라”

= 흔히 말하는 메타 인지와 유사한 표현인데 이렇게 말하면 직관적으로 알아듣더라고요.

cctv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80분을 운용했는지,
어떻게 글을 읽어내렸는지,
어떻게 선지를 판단했는지를
꼼꼼이 되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다음 실모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필히 기울여야 합니다.

여담으로 실모 퀘이 어떻니~ 이런 말은 남은 기간 제발 하지 맙시다!

5. 일정표

이건 개인별로 수강하고 있는 선생님, 교재 등이 너무 다른 영역이므로 부디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언매 기준 - 국어에 대략 3시간 내외 투자한다 가정.

월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실모 + 피드백
화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기출 분석 + 양치기(이때 문학 풀이 시 문학 개인 단권화에 정리한 내용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함) + 언매 1~2세트 풀기 + ebs
수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기출 분석 + 양치기 + 언매 1~2세트 풀기 + 언매 모고
목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실모 + 피드백
금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기출 분석 + 양치기 + 언매 1~2세트 풀기 + ebs
토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기출 분석 + 양치기 + 언매 1~2세트 풀기+ 언매 모고
일 : 문학 개인 단권화 읽기 + 기출 분석 + 양치기 + 언매 1~2세트 풀기+ 언매 개념 복습

(화작의 경우 언매를 빼시고 주2~3회 정도로 언매 모고 대신 화작 모고를 시행하면 됩니다.)

⇒ 만약 본인이 수강하는 현강 등에서 기출 분석 자료를 준다면 그걸 따라가세요.

⇒ 만약 본인이 현강을 다니지 않아 무엇을 기출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주에 기출 2세트씩 분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7수능, 18수능), (19수능, 20.06), (20.09, 20수능), (21.06, 21.09), (21수능, 22예비)
(22.06, 22.09)를

각자의 일정에 맞게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트별로 분석을 진행하면 특정 영역, 특정 스타일에 편중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세트면 독서 6, 문학 8 지문입니다.

이를 한 번에 몰아 풀지 마시고,

본인의 학습 계획에 맞춰 분배해 지문별로 풀이와 분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마치며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른 말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읽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든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문학 독해 태도 및 선지 판단 원칙 단권화입니다.
이건 제발 해보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고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정말 마치며
남은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을 공고히 만드는 기간입니다.

해당 칼럼을 참고해 각자의 학습 계획에 맞게 반영해서
수능 국어 2등급 이상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인터넷일지라도
저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